

순정과 SF의 조우 - 1990년대 SF 순정만화 속 비인간 타자들*

김은정**

1. 순정, SF, 타자
2. SF 순정만화 속 타자의 형상
3. SF 순정만화 속 타자의 포용과 애도
4. 나가며

국문초록

이 글은 1990년대 여성 만화작가들이 생산한 SF 작품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순정만화가 구축해온 장르적 관습과 SF가 만나 이룬 서사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당대 작품을 살펴본 결과 비인간 타자라는 이질적인 존재와의 조우를 서사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발견하고 SF 순정만화 속 외계인, 로봇, 안드로이드, 유전자 변이체 등 비인간이 재현되는 양상과 이들과의 관계를 풀어내는 서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SF 순정만화 속 비인간의 형상은 인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순정만화의 장르 법칙인 미형의 그림체 때문이다. 숨겨진 감정을 포착하는 데 주력하는 순정만화의 도상으로 인해 인간'처럼' 생긴 순정만화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09420001)

** 가천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속 비인간은 인간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종적 이질감이 갈등요소로 작동하지 않는다. 더불어 ‘순정만화식’ 서사라고 여겨진 멜로드라마적 감정 과잉과 타자와의 합일을 꿈꾸는 로맨스는 비인간을 인간으로 받아들이는 토대가 된다. 우선 SF 순정만화의 비극적 낭만성은 비인간에 대한 학대와 착취와 같은 사회 갈등 및 부조리를 폭로한다. 또한 타인의 고통을 나로 확장하는 사랑이라는 감수성은 비인간을 유일한 존재로 받아들인다. 즉, SF 순정만화는 비인간을 애도할 수 있는 대상이자 애도할 수 있는 죽음으로 상정하고 이들 존재의 위태로움을 미학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비인간 타자에 대한 포용과 애도의 정치학을 발휘했다. 그러나 순정과 SF의 만남은 비인간과 다양한 연대를 구체화하지 못하였으며 비인간도 ‘인간임’을 증명하는 서사에 치중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즉, 인간(종)중심주의의 휴먼드라마로 귀결되거나 타자와의 차이를 긍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30여 년 전에 출간된 여성 만화작가의 작품이 인간/기계/생명에 대하여 도구적 관계를 넘어선다는 측면에서는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나아갈 선제적 가능성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에서 SF라는 특정 장르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90년대 순정만화의 역할과 자장을 찾는 단서가 될 것이다.

(주제어: 1990년대, 순정만화, SF, 비인간, 타자, 멜로드라마, 로맨스, 애도)

1. 순정, SF, 타자

SF에 관한 콘텐츠가 매체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는 현 문화 전경에서 SF 비평 연구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과거 문화사에서 SF의 자리를 재발견하고 정립하려는 연구에서부터 한국 SF의 장르적 계보를 찾는 작업, 그리고

인류세, 포스트휴머니즘과 같은 키워드로 SF를 읽어내려는 시도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부재로서의 한국 SF 만화”라는 표현이 잘 드러내듯,¹⁾ SF 웹툰이나 만화에 대한 국내 비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반세기에 걸쳐 성장해온 SF 만화지만, SF 장르에 대한 평가는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만화 작법과 만화적 상상력만이 보여줄 수 있는 SF 만화의 장르적 특성이나 미학에 대한 평가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현대 만화사는 거대 로봇이나 메카닉에 치중한 70년대를 SF 장르의 융성기로 기억하며,²⁾ 80년대 이후를 급속한 쇠락기로 본다.³⁾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순정만화는 강경옥의 〈별빛 속에〉(1987)를 시작으로 성찰적 우화(Speculative Fabulation)로서 한국 SF 만화 역사에서 독특한 이정표를 세웠다.⁴⁾ ESP 초능력자, 외계인, 사이보그, 인간 복제, 게임 속 가상현실까지 여성 작가가 다루었던 소재는 단순히 ‘인간과 기계의 대립’이나 ‘외계인 침공’과 같이 인간(종)의 생존이나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고착된 공식을 넘어선다. 이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제기하며⁵⁾ 인간과 로봇의 공생관계, 안드로이드와의 로맨스, 비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이라는 포스트휴머니즘적 사고실험을 시도했다.

여성 작가가 쓴 SF 만화는 시기와 서사면에서도 선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의 SF 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복거일의 『비명을

1) 서은영, 「한국 SF만화에 나타난 냉전 시대의 공포 1960년대초, 우주 소재 SF만화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제18권 3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2, 120쪽.

2) 전혜진, 『순정만화에서 SF의 계보를 찾다』, 구픽, 2020, 38쪽.

3) 박인하·김낙호, 『한국현대만화사 1945-2010』, 두보CMC, 2012, 79쪽.

4) 김은정, 「1990년대 여성 만화의 SF 페미니즘적 성취: 신일숙의 『1999년생』, 『나의 이브』, 『나무 박사를 찾아서』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77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407-438쪽.

5) 윤선희, 「소녀들의 감성으로 본 과학: 소녀만화에 나타난 과학에 대한 성찰성」, 『과학기술학연구』 제14권 2호, 과학기술학연구, 2014, 310쪽.

찾아서』와 같은 시기인 1987년 연재된 강경옥의 〈별빛 속에〉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SF 에픽 서사'로서 순정만화사에 작품성과 인기도 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다. 동일작가의 〈노말시티〉(1993) 역시 완성도나 장르적 요소에서도 본격 하드 SF 요소를 충실히 다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⁶⁾ 신일숙의 〈1999년생〉은 1988년 만화잡지 시대를 열었던 최초의 순정만화 잡지 『르네상스』 창간호에 실렸으며, 1992년 이제 막 가정용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기 연재된 김진의 〈러브 메이커〉(1992)는 주인공이 게임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혁신적인 스토리를 보여준다. 또한 잡지 『땡기』에 연재되었던 황미나의 〈레드문〉은 90년대를 대표하는 SF 대작으로 이후 디지털 게임으로 매체 전환되었다.

80년대에서 90년대를 가로지르는 여성 만화작가의 SF는 시기, 인기도, 내용, 주제의식 면에서도 남달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SF 순정만화는⁷⁾ 한국 SF 문학의 대표작가인 듀나를 비롯하여 80년대 이후 태어나 활발히 창작활동을 하는 SF 여성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장르로 평가받고 있다. 듀나는 강경옥, 김진, 신일숙과 같은 순정 만화작가들을 빼놓고서는 한국 SF의 역사를 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⁸⁾ 정세랑 작가는

6) 이지용, 『한국 SF의 스토리텔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9쪽.

7) 이 글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SF 소재와 아이콘을 테마로 삼아 출판된 순정만화 작품군을 'SF 순정만화'라는 용어로 범박하게 지칭했다. 물론 '순정SF'라는 용어가 2000년대부터 잡지나 비평서에 종종 쓰이기는 했으나 장르 분류를 위한 단순 지칭이었다고 보인다. 대신 SF와 순정만화를 동시에 언급하면서도 둘 간의 관계를 특정하지 않고자 두 단어를 띄어쓰기로 구분한 'SF 순정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8) 90년대 SF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듀나는 『평형추』의 영어번역본 출간 관련 인터뷰에서 자신의 작품세계에 영향을 미친 영화나 고전을 알려달라는 질문에 1988년에 출간한 신일숙 작가의 『1990년생』을 꼽았다. 그리고 신일숙 작품 속 액션묘사를 『아직은 신은 아니야』(2013)와 『민트의 세계』(2018)에 차용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한국 SF 작품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강경옥, 김진, 신일숙과 같은 80~90년대 여성 작가들을 언급하면서 순정만화를 빼놓고는 한국 SF의 역사를 논할 수

한국 SF를 읽고 SF 작가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순정만화 작품이 자신을 SF 작가로 만들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⁹⁾ 따라서 한국 SF 연구에서 계보를 찾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SF 순정만화가 갖는 학술적 의의를 논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일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여성 만화작가들이 생산한 SF 작품을 주요 분석 텍스트로 삼아 SF 순정만화의 서사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작가	작품	권수	출간 시기
강경옥	별빛 속에	1-10권	1987년~1990년
	라비험폴리스	1-3권	1989년~1992년
	노말 시티	1-15권	1993년~2001년
	팬탈+샌달	1-3권	1992년
김진	러브 메이커	1-2권	1992년
	푸른 포에닉스/ 외전 (황무지, 상그리아)	1-3권	1988년
김혜린	아라크노아	1-2권	1992년
신일숙	1999년생	상, 하	1988년 11월
	나무 박사를 찾아서	단편	1996년
	나의 이브	단편	1996년
원수연	휴머노이드이오	1-2권	1992년 1월~1993년 2월
이미라	남성 해방 대작전	1-9권	1997년
황미나	레드문	1-18권	1994년
	파라다이스	1-8권	1994년~1998년

〈표 1〉 1980년대-1990년대 작가주의 여성 만화작가의 SF 작품

없다고 말했다. 〈South Korea's Enigmatic Sci-Fi Legend, Opens Up About Their New Book〉, 『WIRED.Com』, 2023.7.11. (<http://www.wired.com/story/pseudonymous-author-couterweight-djuna-interview-wired-30>)

9) 이영경, 〈이것이 한국 SF의 모든 것〉중심으로 도약하는 ‘오늘의 한국 SF’], 『경향신문』, 2019.12.17. (<https://m.khan.co.kr/culture/book/article/201912171933001#c2b>)

위의 작품 리스트에서¹⁰⁾ 보다시피 이 글은 작가주의 여성 작가를 중심으로 텍스트를 분석했으며, 90년대 활동한 작가인 권교정, 최경아, 서문다미의 작품은 제외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는 작가를 중심으로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우선 작가의 지명도로 인해 작품이 독자에게 널리 읽혔다는 점과 작가별 작품관이 뚜렷한 작가들이기 때문에 작가의식과 병합하는 일정한 주제의식 아래 SF가 차용된 이유와 효과를 정치하게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분석에 앞서 14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된 주제의식을 찾았다. 그러나 출판 시기로 묶일 뿐 SF 순정만화는 매체별 독자층별 주제별 매우 상이하다. 일례로 <팬탈+샌달>과 <휴머노이드 이오>는 초등 여학생을 위한 잡지 『나나』에 실렸으며, <나의 이브>는 성인 남성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일간 스포츠』에 실렸다. 여기에 <푸른 포에닉스>와 외전 2권, <아라크노아>, <남성 해방 대작전>은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 더욱이 개별 작품마다 고유한 작가의식에 따라 SF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서사적 가치 실현 역시 달랐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전체 작품군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통점을 찾기보다 오히려 독자를 중심으로 왜 이들이 당시 이 작품을 SF라고 인식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SF의 '메가 텍스트(megatext)' 개념을 적용했다. 메가 텍스트란 SF 작품간 상호텍스트적으로 축적되고 공유된 이미지와 SF 모티브의 특정 집합으로, 지금도 확장하고 있는 의미 그물망을 뜻한다.¹¹⁾ 메가 텍스트 그물망에서 작동하는 SF 아이콘으로 로봇, 우주선, 외계인, 디스토피아와 같은 특정 풍경과 사물을 들 수 있다. 이

10) 박인하, 김낙호, 『한국현대만화사』와 전해진의 『순정만화에서 SF의 계보를 찾다』와 위키피디아 인터넷판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11) 세릴 빈트, 『에스에프 에스프리』, 전행선 옮김, 아르테, 2019, 100-101쪽.

와 같은 SF 아이콘은 독자들에게 지금 읽고 있는 내용이 기존의 SF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주며 ‘이것은 SF’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¹²⁾ 같은 방식으로 순정만화의 SF 아이콘을 분석한 결과 14편의 작품 중 12편의 작품이 인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비인간 타자를 모티브로 삼아 이질적인 존재와의 조우를 서사화하였음을 발견했다.¹³⁾

그렇다면 이러한 소재의 편중은 90년대 여성 작가들의 SF 만화에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90년대는 미래과학 기술에 대한 양가의 감정이 팽배했던 시대로 1999년 종말에 대한 세기말적 감수성이 대중문화인 만화에도 투영되었다. 일례로 1993년 유전자 복제를 통해 공룡을 부활시킨 할리우드 공포영화 <쥐라기 공원>은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1996년 ‘복제 양 돌리’에 관한 뉴스는 생명과학에 대한 희망과 불안을 표출했다. 80년대 새로운 서브 장르로 주목받던 사이버 펑크가 90년대 하나의 서사적 아이콘으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다.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1988)와 <공각기동대>(1995)의 열풍은 국내 SF 만화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는 동시대 남성 만화작가들의 대표 작품인 이현세의 <아마게돈>(1988), <아바돈>(1993), 김준범의 <기계 전사 109>(1989)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60년대 SF 활극을 거쳐 70년대 거대 로봇물로 인기를 얻은 한국 SF 만화는 이후 새로운 독자층에 어필하기 위해 비인간 소재를 통해 다양화를 꾀했을 것이다. 이는 90년대라는 시대가 요청하는 장르적 전환이자 시장의 요구에 반응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

12) G. Jones, “The icons of science fict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science fiction*, New York: Cambridge Univ. Press, 2003, p.163.

13) 비인간을 소재화하지 않은 두 작품 중 강경옥의 <라비험폴리스>는 근미래인 2025년을 배경으로 하며 복제인간이나 안드로이드와 같은 존재는 등장하지 않는다. 김진의 <러브 메이커>는 컴퓨터 보조기억장치로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던 1990년대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컴퓨터 게임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다.

마찬가지로 90년대 여성 만화작가들 역시 순정만화의 장르적 확장을 위해 혹은 출판 잡지 수익을 위해 SF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¹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타 남성 만화작가의 작품과 달리 순정만화는 SF와의 성공적으로 교집합을 이루며 그들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순정만화라는 장르는 오랫동안 축적돼온 읽기 관습과 작가와 독자의 암묵적 약속으로 구획되는 서사적 특징이 뚜렷한 장르다. 따라서 여성 만화작가들은 SF를 빌려오면서도 그동안 순정만화를 익숙하게 접해왔던 여성 독자들의 욕망이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 순정만화의 서사적 관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순정만화가 구축했던 장르적 관습 안에서 어떻게 SF를 수용 혹은 전용했는가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SF적 상상력으로 탄생한 비인간 타자들을 어떻게 재현하고 서사화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 글은 순정만화와 SF라는 두 장르가 만나면서 일어나는 서사적 조응, 침투, 변용의 양태를 살펴보고자 작품 속 인간과 비인간을 재현하는 방식과 서사에 집중한다. 또한 남성/백인/이성애자를 주체로 삼고 여성을 비롯해 그 외의 존재를 타자화했던 위계화된 사고 체계를 폭로하는 정도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순정만화 속 축적된 도상과 서사적 관습 위에 창작된 SF를 통해 비인간 타자를 향한 포스트휴머니즘적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는 궁극적으로 SF 순정만화가 1990년대 세기말적 감수성에 대응하는 방식이자, 더불어 인간 '이후'의 인간에 대한 사고실험, 즉 포스트휴머니즘적 전망에 관여했음을 밝히기 위함이다.

14) 순정만화에 SF가 등장한 또 다른 이유로 대본소 체제에서 만화잡지 출간이라는 유통 채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만화방에서 책을 빌려보던 시기에는 시리즈별로 여러 권의 단행본을 연재해야 했지만, 월 단위로 생산되던 순정만화 잡지 시스템에서는 장편이 아닌 중단편의 작품을 선보일 지면이 주어졌다. 이에 작가들은 장르적 확장이나 실험적인 작품을 생산하고자 시도했으며 SF 순정만화 역시 그러한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2. SF 순정만화 속 타자의 형상

SF 속 형상은 필연적으로 윤리적 물음을 요청한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어떤 것을 지금 여기로 끌어와 독자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것의 형상화(figuration)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사과의 절차, 즉 재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재현의 논의는 타자 윤리의 사유로 이어진다. 특히 SF에서 비인간으로 일컬어지는 미래의 존재, 낯선 존재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화는 글과 그림을 동시에 사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비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글 이전에 이미 형상을 통해 독자에게 명징하게 전달된다. 더욱이 외계인, 로봇과 같은 SF 아이콘은 장르 문법 내에서 확립되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 간 교류를 통해 변화한다. SF 아이콘은 주어진 시간대나 출판 체제 내에서도 단일한 비중이나 의미를 갖지 않으며, 특정한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은 유지하나 변형의 가능성은 언제나 내재한다.¹⁵⁾ 이러한 측면에서 SF 순정만화에 등장한 비인간의 도상은 서구 SF의 관습이나 동일 문화권 내의 남성 만화작가들의 작품 속 도상과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15) D. Broderick, "Reading sf as a mega-text", *Science Fiction Criticism*, Rob Latham (ed.).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2017, p.144.



〈레드문〉의 외계인 ‘사다드’



〈휴머노이드 이오〉의
안드로이드 ‘이오’



〈노말시티〉의
유전자 복제인간 ‘마르스’



〈나무 박사를 찾아서〉의
로봇 ‘나물리’

〈그림 1〉 SF 순정만화 속 비인간의 형상

위의 그림은 SF 순정만화 속 비인간들의 모습이다. 보는 바와 같이 인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 황미나의 〈레드문〉에 나오는 ‘사다드’는 시그너스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다. 그러나 복장과 무기는 마치 고대 전통 무사나 아랍권 문화의 것과 흡사하다. 순정만화 속 외계인은 마치

고대 나라와 서구 문명에서 볼 법한 복장과 신분체계를 고수하며 단지 기술적으로 지구보다 월등하다고만 소개된다. 안드로이드를 주인공으로 다룬 <휴머노이드 이오> 역시 남주인공 ‘이오’가 작품 초기에 잠깐 메탈로 등장할 뿐 몇 페이지 지나지 않아 잘생긴 아이돌의 모습으로 바뀐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인간 모습을 유지한다. 다음으로 <노말 시티>의 마르스는 유전자 공학을 통해 태어난 복제인간이지만 형상의 기괴함은 회피되고 오히려 그 강함이 아름다움으로 표출되었다. 마지막 <나무 박사를 찾아서>의 ‘나물리’는 여타 작품과 달리 로봇임을 바로 알 수 있는 형상이지만 여자가 이를 돌보거나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인간과 동화되는 연출이 잦다.

먼저 순정만화 속 외계인을 보면 서구 SF에 등장하는 외계인처럼 위협적이거나 미개한 종으로 묘사되지 않는다.¹⁶⁾ 그저 인간과 다른 모습이다.¹⁷⁾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SF 순정만화는 지금까지 흔히 보았던 외계인 SF와 달리 주인공이 외계인을 따라 지구를 아예 떠나버린다는 사실이다. 보통 외계인 SF는 정체불명의 우주선이 지구 상공에 갑자기 나타

16) 외계인(alien)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타자성과 차이를 암시한다. 20세기 초반 외계인은 식민주의 시대 인종과 계급 차별이 함축된 형상화로 호전적이며 위협적인 괴물로 재현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외계인의 형상은 급격히 달라지는데, ‘감지할 수 없는’ 또는 ‘불분명한 형태’의 유기체, 기생충, 포자(孢子)로 재현된다. 이러한 재현은 신체적 접촉 없이 정신을 이념으로 물드는 이데올로기의 위협에 대한 알레고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후 냉전 시대가 끝나는 60~70년대 외계인은 ‘E.T’로 대변되는 자비로운 외계인(sympathetic aliens)을 통해 거꾸로 인간의 이기주의 혹은 폭력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기능하였다. 이후 외계인은 ‘지구 침략자’라는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성별과 인종에 대한 문화적 타자로 소급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D. Seed, “Alien Encounter”, *Science Fic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 Press, 2011, pp.28-39;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동인, 2017, 74쪽.

17) <별빛 속에>는 지구인과 카피온 행성 종족이 혈통적으로 같으나 수천 년을 떨어져 지냈다는 설화를 통해, <나의 이브>에서는 태초에 지구에 착륙한 외계인 과학자가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설명을 통해 둘 간의 형태 유사성을 이해시킨다. 그러나 이외의 작품들은 이렇다 할 배경 설명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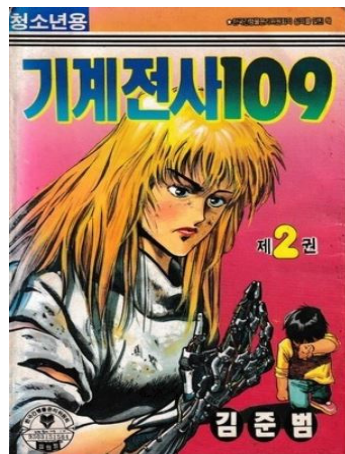
나 ‘침공’이라는 파괴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지구를 무대로 두려움, 불안의 서사를 진행한다.¹⁸⁾ 그러나 SF 순정만화는 지구가 아닌 오히려 외계가 주요 서사 무대인데, 이는 외계가 주인공이 현실을 탈출해 이(異)세계로 떠나는 ‘비일상의 공간’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SF 순정만화 속 주인공은 마치 여행하는 방랑자처럼 외계에 도착한 순간부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성장한다.

70년대 북미 페미니스트 SF를 연구한 사라 르판뉴는 고딕 판타지에 자주 쓰였던 ‘여행하는 여성 영웅주의(Traveling heroism)’ 서사가 SF에서는 여성을 주체로 기입하는 하나의 서사적 형식으로 쓰였다고 논했다. 이는 여주인공이 외계라는 시공간에서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지구)여성에게 부과된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¹⁹⁾ 비슷한 맥락에서 SF 순정만화 역시 지금까지 순정만화의 장르적 토대가 되었던 판타지의 여성 영웅주의 관습이 이어졌다고 보인다. 순정만화는 90년대 이전부터 환상성을 적극적으로 빌려와 현실과 동떨어진 신화 속 미지 세계, 서구 고대 왕국을 여성의 대안 세계로 그려왔다. SF에서는 이러한 순정만화 속 환상성이 외계성으로 전치되고, 여성의 현재적 삶을 탈피할 새로운 시공간으로 고대 신화에서 외계로 설정이 바뀐 것이다. <별빛 속에>의 여왕이 다스리는 카피온, <남성 해방 대작전>의 남성과 여성의 권력 관계가 뒤집힌 파라제국, <레드문>의 초능력을 통해 남녀 모두 전사로 분하는 시그너스 행성이 그러한 예이다.

18) <별빛속에>와 <레드문>에서는 외계인 침략으로 주인공의 부모 혹은 친구들이 살해당하는 폭력적 사건과 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주인공의 심리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외계인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거나 지구를 탈환하는 외계 대 지구라는 행성 싸움은 아니다.

19) S. Lefanu, *Feminism and Science Fic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 Press, 1988, pp.8, 25-27.

다음으로 SF 순정만화 속 안드로이드와 로봇의 형상화는 기계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사이보그의 키메라적 혼종 상태를 그리지 않는다. 작품 속 사이보그가 등장하는 경우는 영화 <터미네이터>(1984)처럼 악당, 인간성 없는 존재, 파괴적 힘을 가진 무자비한 무기로 그려질 때뿐이다. 즉, SF 순정만화 속 로봇, 안드로이드는 기존의 SF에서 보여주었던 인간 개념의 한계와 경계의 불안정을 드러내는 기능이 삭제되었다. 이는 같은 시기 남성 만화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점이다. 아래의 그림처럼 김준범의 <기계 전사 109>는 사이보그 여성을 통해 계급 차별문제를, 심갑진의 <비천어>(1997)는 알 수 없는 생명체 '사이'와 인간 '나오'가 결합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두 작품 모두 인간과 비인간의 교란되는 경계선을 주제의식에서만 아니라 형상의 측면에서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기계 전사 109>의 사이보그 '셰어'



<비천어>의 인간 '나오'와 결합한 생명체 '사이'

<그림 2> 남성 만화작가의 SF 작품 속 비인간의 형상

또한 SF 순정만화 속 유전자 변이체 역시 형태적 기괴함보다는 초능력으로 대표되는 능력적 우월성으로 인간이 아님을 표시한다. 특히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신인류는 이종 간 결합을 통한 신체변형이나 물리적 증강이 아닌, 초능력이라는 정신적 증강을 통해 신체적 우월함을 우회적으로 재현한다.²⁰⁾ 이로 인해 유전자 변이체들은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뿐 아니라 보통 인간보다 더 아름답기까지 하다.

요약하자면 SF 순정만화는 비인간을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전면 서사화하면서도 이를 형상의 차이로 즉 종적 다름으로 재현하지 않는다. 오히려 SF 순정만화가 타자를 드러내는 방식은 그 형상적 차이를 숨기는 데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순정만화의 장르적 범칙인 미형의 그림체 때문이다.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는 데 특화된 순정만화는 표정 클로즈업이 주된 연출이다. 이는 순정만화가 사건의 전개보다는 인물의 감성적 변화를 포착하는 데 주력한 장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인간의 감정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위해 비인간도 인간과 동일 형태로 그려져 흡사 인간처럼 감정을 표현하도록 한다. 하지만 형상적 차이를 숨기는 더 큰 이유는 순정만화는 관계 맺음이 서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과 비인간의 우정과 사랑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종적 이질감을 갈등요소로 작동하지 않도록 애초부터 인간 '처럼' 생긴 미형의 비인간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비인간을 향한 독자의 원초적 거부감을 없애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했을 것이다.

20) SF 순정만화에서 묘사된 초능력은 텔레파시, 정신지배, 기억 조작으로 대표되는 심리적 능력뿐 아니라 순간이동이나 염력과 같은 물리적 조작 및 파괴력까지도 포함한다. 이러한 초능력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 얻은 신인류의 우월함을 말하거나 외계인을 인간과 구별하고자 할 때 종종 쓰이는 설정이다. 그리고 여성이 초능력을 사용하였을 때는 인간(특히 남성)의 물리적 힘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신체적(초)능력을 가진다는 설정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형상의 차이를 숨기는 SF 순정만화는 애초부터 타자를 인간과 구별되는 적대적 혹은 대립하는 항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상 오랫동안 비인간은 ‘인간’을 정의하기 위해 되려 ‘인간 아님’을 설정하는 경계로 기능해왔다. 그리고 경계설정을 위해 타자는 가치절하 혹은 비정상화되었다. 그러나 SF 순정만화 속 비인간은 형상만을 보았을 때는 ‘인간임’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그려져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재현 방식은 ‘차이’나 ‘다름’에 대한 독자의 감각을 변화하도록 유도하지 못한다. 일례로 북미의 페미니스트 SF는 타자적 존재의 형상을 통해 전통적으로 고정된 젠더와 이성애를 비자연화하였다. 우선 외계 생물체와의 종적 결합은 인간(종)의 지속을 위협하는 비생산적 행위로 정치화했으며, (무성생식이 가능한) 외계인의 관점을 빌려 젠더 이분법에 복무하는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제를 퀴어하게 보도록 만들었다.²¹⁾ 또한 안드로이드 (특히 지노이드)를 비롯한 무성의 사이보그가 여성성을 흉내 내는 방식을 재조명함으로써 젠더란 여성성을 수행하는 하나의 가면과도 같은 것임을 폭로했다. 이와 달리 SF 순정만화는 차이를 ‘생성’함으로써 타자성과의 원초적 만남을 기획하지 않고 오히려 차이를 ‘지움’으로써 사랑의 대상으로 남성이 아닌 외계인, 로봇, 안드로이드를 선택했다. 그렇다면 비인간 신체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부여하고 이들과의 유사-이성애 관계를 주요 테마로 삼은 SF 순정만화는 어떠한 방식으로 타자를 인식하는가.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순정과 SF가 조우하는 포용과 애도의 정치성을 분석한다.

21) V. Hollinger, “(Re)reading Queerly: Science Fiction, Feminism, and the Defamiliarization of Gender”, *Science Fiction Studies*, Vol.26 No.1, 1999. p.27.

3. SF 순정만화 속 타자의 포용과 애도

1950년 전후 탄생한 순정만화는 시대별 궤적을 달리하며 독자층과 주제의식을 다양화했다. 이에 '순정'만화라는 용어는 그 적절성이 논란이 될 만큼 SF, 판타지, 역사, 스포츠 등 장르적 경계를 넘나들며 창작되었다. 따라서 순정만화를 정의할 수 있는 합의된 개념은 없지만, 이 글은 순정만화를 창작하고 소비한 생산자-향유자의 구축된 약속을 통해 순정의 뜻을 정의하고자 했다. 즉, 순정만화를 읽으면서 향유하고자 혹은 향유하기를 기대한 독자의 감정의식을 '순정'이라고 협소하게 정의한 후 순정만화의 서술방식을 두 가지로 나누었다. 바로 멜로드라마적 감정 과잉과 유일 사랑의 결합인 로맨스다.

먼저 멜로드라마 서사 형식을 갖춘 김혜린과 황미나의 작품을 살펴본다. 김혜린의 <아라크노아>는 핵전쟁 이후 지구연맹이 시작한 프로젝트 Q를 둘러싼 유전자실험에 관한 이야기다. 핵폭발로 인해 유전병이 일어나고 이를 치유하고자 했던 초능력 실험은 인간병기 혹은 노예 생산으로 전향된다. 그러나 초능력이라는 것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지구연맹은 모든 실험체를 폐기하기로 한다. 프로젝트 Q를 주도했던 리안 박사는 폐기 명령을 거부하고 신생아 2명만을 겨우 구출해 반정부단체 '아라크노아'를 만든다. 이 작품은 아라크네(Arachne)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인물을 통해 작품 전체의 주제의식을 설명한다. 아라크네는 아테네 여신과 베히기기를 겨루고 실력으로 신을 이긴 유일무이한 인간이지만, 그로 인해 신의 저주를 받아 거미가 된 여인이다. 리안 박사는 자신을 유전자라는 실을 지으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 아라크네로 비유한다. 다음은 작중 리안 박사의 독백이다.²²⁾

그런 것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우리 종의 한 단면일 뿐이다. 아라크네들이 실을 짚는 것은 굴종의 표시가 아니라 생존과 항거의 몸짓이다.

리안 박사는 유전공학을 통해 탄생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모든 생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긍정과 강한 열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 “이 아이들은 인간이다! 만들었다고 부술 권리를 누가 주었느냐? 나의 아이들아, 우리들은 인간이다!”라며 울부짖듯 박사의 내레이션은 비인간을 착취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고양된 감정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황미나의 〈파라다이스〉는 ‘에스퍼’로 지칭되는 초능력자들이 다수 나타난 근미래를 배경으로 한다. 일반인들은 초능력자를 괴물 취급하고 정부는 이들을 무기로 관리한다. 동등한 권리를 찾기 위해 봉기한 초능력자들은 반란을 일으켜 지구를 지배하는 데 성공하지만, 초능력자 사회 역시 비초능력자를 철저하게 차별하는 계급사회로 전락한다. 이에 저항군으로 활동하던 에스퍼 김준호와 미리내는 초능력자를 간단히 쓰러트릴 무기를 얻어 독재정권을 함락시킨다. 그러나 해방된 평범한 인간들은 그동안 함께 싸운 초능력자마저도 모두 몰살시키고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든다. “지구를 싫어하게 만든 것은 우리를 괴물 취급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중략) 죽더라도 ... 괴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죽을 수 있게 이곳을 떠나자 ...”라며 결국 남녀주인공 모두 지구를 떠난다. 초능력자 대 비초능력자라는 이분화된 권력다툼과 투쟁, 그리고 인물들의 우정과 사랑을 녹여낸 〈파라다이스〉는 제목과 달리 그 누구도 파라다이스를 찾지 못한 채 비극으로 끝난다.

22) 김혜린, 〈아라크노아〉 1권, 1쪽.

두 작품 모두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짓고 차별하는 “사회 관습의 질서와 규칙 그리고 모순을 드러내는 특별한 시스템”으로서 멜로드라마 양식을 사용했다.²³⁾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등장 인물의 자살이나 파괴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과 비극적 결말을 통해 정서적 과잉을 만들었다. 더 나아가 두 작품은 비인간들의 특수한 삶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들의 평범한 삶과 연결되는 보편적 감수성을 찾아 부각함으로써 독자에게 심리적 리얼리티를 제공했다. 이엔 양은 멜로드라마 속 상황이 비현실적임에도 독자가 등장인물의 감정에 공감하며 일체감을 느끼는 이유는 감정적 리얼리즘(emotional realism) 때문이라고 했다.²⁴⁾ 정서적 리얼리티는 누구에게나 이해 가능한 보편적 감성 기반에 호소함으로써 멜로드라마의 과잉을 설득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작품 모두 생명에 대한 애착과 존중받을 권리를 희망하는 비인간의 ‘인간적’ 모습을 통해 보편적 인간 심리와 갈등을 보여주며 독자와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는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보편적 물음을 비인간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비인간 타자에게 인간성을 부여하는 전략이다. “존재를 생각하고 존재이기 때문에 우는”²⁵⁾ 비인간 타자의 아픔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멜로드라마의 비극적 감정구조 때문에 가능하다. 이때 순정만화 속 시처럼 읊조리는 내레이션, 말과 칸의 감성적 배치는 독자의 감정을 고양하는 데 있어 더없이 효과적이다.²⁶⁾

23) 최아롱, 「순정만화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양상과 여성 정체성: 김혜린의 『비천무』, 『테르미도르』, 『불의 검』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9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03, 132쪽.

24) 이엔 양, 『델러스 보기의 즐거움』, 박지훈 옮김, 나남신서, 2018, 88-89쪽.

25) 김혜린, 〈아라크노아〉 2권, 73쪽.

26) 김지영, 「순정만화의 멜로적 형식과 감성의 정치학」, 『어문논집』 제53호, 민족어문학회, 2006, 455쪽.

다음으로 작품 〈노말 시티〉, 〈휴머노이드 이오〉, 〈나무 박사를 찾아서〉는 비인간 타자에 대한 대안적 로맨스다. 〈노말 시티〉는 제목에서 암시하듯 일반인들, 즉 비초능력자들이 사는 ‘정상 도시’에 강한 초능력을 가진 주인공 마르스 헤븐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유전자 조합으로 창조된 마르스는 지구를 파괴할 정도의 괴력을 지닌 여성 괴물로서 한 달에 한 번 일정 기간 초능력을 아예 상실한 ‘무해한’ 남성으로 변하는 젠더 플루이드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낙인찍힌 마르스는 세상을 향한 분노로 지구를 위협하는 데 이러한 광기를 잠재우는 것은 마르스를 끝까지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샤’라는 존재 때문이다. 〈휴머노이드 이오〉에서 남주인공 ‘이오’는 은하라는 소녀의 생일선물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다. 이오는 은하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은하는 이러한 이오의 감정이 프로그래밍 된 행동으로 치부한다. 결국 이오는 위험에 처한 은하를 구하기 위해 적을 꺾이고 우주 밖으로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 자신을 증명한다. 〈나무 박사를 찾아서〉의 로봇 나물리는 마을에서 천대받는 고아 소녀 라우라를 돌보며 지켜준다. “따뜻한 마음이 없는 인간들보다 훨씬 인간답”²⁷⁾ 나물리는 인간과 로봇의 대안적 돌봄 관계를 이상화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로맨스란 타인을 향한 나의 존재론적 인정욕구를 실현하는 행위다. 왜냐하면 로맨스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너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유일 타자의 위치를 인정해주는 서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불변 법칙은 SF 순정만화에서는 비인간을 받아들이는 토대가 된다. 비인간의 내면을 관통하는 지배 정서는 ‘소외’ 혹은 ‘정체성의 혼란’이다. ‘아님’으로 표현되는 자의식과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비인간의 아픔은 로맨스 특유의

27) 신일숙, 〈신일숙 환상전집 IV〉, 246쪽.

감정적 자극으로 발화되고 비인간은 인간으로부터 이해의 대상, 즉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존재가 된다.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나로 확장하는 사랑이라는 감수성을 통해 비인간은 하나의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마침내 비인간의 사랑은 완성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음으로써 그/녀는 유일한 정체성을 획득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세 작품 모두 로맨스 특유의 달콤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다. 주인공 마르스는 결국 죽고, 이오는 은하와 이어지지 못한 채 우주를 유랑하며, 나물리는 그렇게 그리워하던 라우라를 만나지 못하고 시간을 계속 워프한다. 다시 말해 SF 순정만화 속 비인간과의 사랑도 멜로드라마처럼 비극적 낭만성을 극대화한 서사로 끝난다.

지금까지 분석한 SF 순정만화가 보여준 비극적 낭만성은 타자를 포용하고 애도하는 하나의 서사 방식이자 비인간과의 연대를 이루는 감정 정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애도의 행위를 분석한 주디스 버틀러는 “누가 인간으로 인정받는가? 누구의 삶이 삶으로 간주되는가? 마지막으로 무엇이 애도할 만한 삶이 되게 해주는가?”라는 물음이 인간다운 삶의 의미 또는 인간의 정의와 직결된다고 말했다.²⁸⁾ 물론 이러한 주장은 9·11사건 이후 자행된 폭력과 살상에 관해 타자의 죽음을 애도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인간의 개념을 축소해버린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펼친 것이다. 그러나 애도 행위를 둘러싼 이러한 정치적 격돌은 서구중심문화가 고수해온 인간관이 사실은 보편적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비인간 타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욕망과 인정의 관계성에 천착하는 애도의 정치학은 비인간의 존재론적 인정욕구와 맞닿아 있으며 이를 비극적 낭만성으로 풀어낸 SF 순정만화의 맥락과도 상응한다. 어떤 주체는 애도의 대상이 되

28)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윤조원 옮김, 필로소픽, 2018, 47쪽.

어야 하고 어떤 주체는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애도 가능성의 차등적 배분은 누가 규범에 맞는 인간인가에 대한 배타적 관념을 생산한다.²⁹⁾ 이러한 측면에서 SF 순정만화는 비인간 타자를 애도의 대상, 즉 애도할 수 있는 존재이자 애도할 수 있는 죽음으로 상정한다. 그리고 이들이 겪어야 했던 존재의 위태로움과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슬픔을 미학적으로 표출하는 데 탁월한 서사 기법을 구축해나갔다. 이로 인하여 독자는 차별이 가져온 폭력에 맞설 감정적 추동과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성찰할 기회를 얻는다.

순정만화는 SF라는 장르와 만나기 이전부터 타자에 대한 삶을 그리고 있었다. 일례로 김혜린은 남녀 간의 사적 공간에서 탈피해 역사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당대에 인간 범주에 들지 않았던 여성, 노예, 유색인 등의 삶에 대한 작품을 써왔다. 따라서 SF 순정만화는 기존의 순정만화가 친숙하게 다루었던 대타자에서 기술적 타자로 그 주제의식을 확대한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해 작가는 외계인이나 안드로이드와 같은 타자를 주인공으로 차용하는 데 있어 기존의 서사를 무리 없이 사용했고, 독자들 역시 비인간과의 로맨스를 수월하게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이는 90년대 순정만화의 주 독자층인 여성들에게 타자란 여성을 전유하는 또 다른 이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순정과 SF의 만남은 인간과 비인간 타자와의 새로운 상상적 자원을 생산했는가. 대부분의 90년대 SF 순정만화는 타자와의 관계 맺음을 중시하며 관용과 포용이라는 도덕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는 인간 생명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를 포용하려는 새로운 윤리적 책임을 제기하면서 인간(중)중심주의의 이기성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

29) 위의 글, 13쪽.

를 보여준다. 그러나 SF 순정만화는 비인간 타자와의 다양한 연대를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이는 종과 종이 만나는 다층적 모습보다는³⁰⁾ 비인간도 ‘인간임’을 밝히는 단일한 결론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먼드라마로 귀결되거나 타자와의 차이를 긍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인간의 인간화(人間化)만을 주장하고 만다. 이는 순정만화가 비인간의 형상적 차이를 지우고 이를 바탕으로 포용(inclusion)과 애도의 정치학을 발휘해 타자를 인간의 범주로 포획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이다.³¹⁾ 이러한 전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선 인간과의 외적(외양) 혹은 내적(감정적) ‘친숙함’이 애도 가능한 기준으로 설정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인간(종) 중심적 기준 설정은 또 다른 배제와 그것의 용인과 강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순정만화식 포용’은 나와 타자와의 차이가 환원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포획 가능한 것, 즉 환원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타자성과의 원초적 만남을 무산시킨다. 다시 말해 차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움으로써 인간 자체에 대한 존재론적 혹은 인식론적 전환에 비판적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90년대 SF 순정만화가 보여준 사고실험과 윤리관의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30) 도나 J. 해러웨이, 『종과 종이 만날 때』, 최유미 옮김, 갈무리, 2022.

31) 이 글에서 포용은 영어의 inclusion에 해당하는 포함에 더 가까운 뜻으로 쓰였다. 순정만화식 포용이란 인간이라는 경계 안으로 비인간 타자를 포섭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것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안과 밖의 연결과 이해를 통해 경계선을 교란하는 대신 그 경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순정만화식 포용은 포함에 더 가깝다고 보인다.

4. 나가며

이 글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여성 만화작가들이 생산한 SF 순정만화작품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아 순정만화식 관습과 SF 장르가 만나면서 생산한 고유한 서사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순정만화 속 특정 작품을 SF라는 하나의 장르로 묶어 새롭게 범주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며, 또한 '순정만화에 SF가 있었다'라는 명제를 증명하려는 작업도 아니다. 장르에 관한 연구는 그 기원을 찾으려는 시도보다 오히려 기존의 장르적 유사성과 대조를 통해 새롭게 발현된 인식이나 감각의 변화를 찾아내는 데 있다. 이 글 역시 'SF 순정만화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보다 순정만화가 SF를 받아들이면서 순정만화식 인식론의 확장이나 변주가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SF 순정만화는 인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질적 존재와의 조우를 서사화하고 있다. 비인간 타자의 모습은 인간의 외양과 다를 바 없는데 이는 미형의 그림체라는 순정만화 특유의 연출법 때문이다. 또한 인간과 비인간 타자와의 관계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SF 순정만화 속 타자의 형상화는 '비인간화'가 아니라 '인간화' 혹은 '인간임'을 인지하는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다. 또한 SF 순정만화는 멜로드라마적 감수성과 타자와의 합일을 꿈꾸는 로맨스를 통해 비인간에 대한 갈등과 부조리를 폭로하고 포용과 애도의 정치학을 통해 연대를 만들어냈다.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을 비인간에게도 부여함으로써 비인간 타자에게 인간성을 부여했으며, 타인을 향한 존재론적 인정욕구를 기반으로 한 로맨스 법칙을 비인간을 받아들이는 토대로 이용했다. 즉 SF 순정만화는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적 사고에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변적 우

화로서 타자의 윤리를 제기하는 경계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물론 SF 순정만화는 비인간의 인간화라는 단일주제의식으로 인하여 인간(종)중심주의로 회귀하는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일상에 침투한 첨단 기술은 비인간을 인간과 비슷한 형태로 재현하면서 새로운 인문학적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기계, 동물, 사물 등 비인간적 존재에 대한 생명 존중과 공감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30여 년 전 출간된 여성 만화작가의 작품이 인간/기계/생명에 대한 철학적 사고와 차별에 대한 이슈를 논했으며 도구적 관계를 넘어 포용의 관계로 서사화했다는 점은 인정받을 만하다. 더 나아가 SF 순정만화는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나아갈 선제적 가능성을 제시했다고도 보인다. 이러한 평가는 한국에서 SF라는 특정한 장르가 형성되는 데 90년대 순정만화가 끼친 영향과 자장을 유추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비인간 캐릭터가 등장하는 SF 순정만화 작품과 그 주제의식이 매우 상이한바 비인간 캐릭터를 단일한 대타자로 묶어 분석한 본 논문을 시작으로 복수의 비인간 타자'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SF 순정만화의 개별 작품 및 작가별 연구를 통해 SF 순정만화의 차별점을 더 면밀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과 단행본

- 김은정, 「1990년대 여성 만화의 SF 페미니즘적 성취: 신일숙의 『199년생』, 『나의 이브』, 『나무 박사를 찾아서』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77호, 한국어와 문학, 2021, 407-438쪽.
- 김지영, 「순정만화의 멜로적 형식과 감성의 정치학」, 『어문논집』 제53호, 민족어문학회, 2006, 419-459쪽.
- 도나 J. 해러웨이, 『종과 종이 만날 때』, 최유미 옮김, 갈무리, 2022.
- 박인하·김낙호, 『한국현대만화사 1945-2010』, 두보CMC, 2012.
- 서은영, 「한국 SF만화에 나타난 냉전 시대의 공포 1960년대초, 우주 소재 SF만화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제18권 3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22, 119-139쪽.
- 세릴 빈트, 『에스에프 에스프리』, 전행선 옮김, 아르테, 2019.
- 윤선희, 「소녀들의 감성으로 본 과학: 소녀만화에 나타난 과학에 대한 성찰성」, 『과학 기술학연구』 제14권 2호, 과학기술학연구, 2014, 281-318쪽.
- 이엔 양, 『델러스 보기의 즐거움』, 박지훈 옮김, 나남신서, 2018.
- 이지용, 『한국 SF의 스토리텔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장정희, 『SF 장르의 이해』, 동인, 2017.
- 전혜진, 『순정만화에서 SF의 계보를 찾다』, 구픽, 2020.
-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윤조원 옮김, 필로소픽, 2018.
- 최아롱, 「순정만화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양상과 여성 정체성: 김혜린의 『비천무』, 『테르미도르』, 『불의 검』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제9권 1호, 2003, 대중서사연구, 131-171쪽.
- Broderick, Damien, "Reading sf as a mega-text", *Science Fiction Criticism*, Rob Latham (ed.).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2017.

pp.139-148.

Hollinger, Veronica, "(Re)reading Queerly: Science Fiction, Feminism, and the Defamiliarization of Gender", *Science Fiction Studies*, Vol.26 No.1, 1999. pp.23-40.

Jones, Gwyneth, "The icons of science fict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science fiction*, New York : Cambridge Univ. Press, 2003, pp.163-173.

Lefanu, Sarah, *Feminism and Science Fic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 Press, 1988, pp.8, 25-27.

Seed, David, "Alien Encounter", *Science Fiction: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 Press, 2011, pp.27-48.

2. 기타자료

<South Korea's Enigmatic Sci-Fi Legend, Opens Up About Their New Book>, 『WIRED.Com』, 2023.7.11. (<http://www.wired.com/story/pseudonymous-author-couterweight-djuna-interview-wired-30>)

이영경, <"이것이 한국 SF의 모든 것" 중심으로 도약하는 '오늘의 한국 SF'>, 『경향신문』, 2019.12.17. (<https://m.khan.co.kr/culture/book/article/201912171933001#c2b>)

Abstract

Sun-jeong Meets Science Fiction: Inhuman Others in 1990s SF Women's Comics

Kim, Eun Joung(Gachon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SF comics produced by female cartoonists in the 1990s to uncover the narrative features at the intersection of Sun-jeong manhwa and SF. A common theme among these comics is their portrayal of encounters with nonhuman entities.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how nonhumans such as aliens, robots, androids and genetic mutants, were represented and plotted in SF Sun-jeong manhwa.

Nonhumans are often depicted in human-like forms. This is primarily a result of the genre's emphasis on aesthetics of capturing the characters' hidden emotions. Due to this emphasis, nonhuman characters tend to resemble humans and seamlessly integrate into human society, thus avoiding typical sources of conflict. In addition, the melodramatic expression of emotions and the romanticism associated with yearning for unity with the other, which are considered essential narrative elements of Sun-jeong manhwa, provide a foundation for accepting nonhumans as akin to humans. The tragic romanticism found in SF Sun-jeong manhwa exposes social conflicts and injustices such as the abuse and exploitation of nonhumans. The sentiment of love, which extends one's own suffering to encompass that of others, fosters acceptance of nonhumans as valid entities. In other words, SF Sun-jeong manhwa envision nonhumans as beings worthy of mourning and portray their deaths as mournable, so they advocate for a politics of inclusion and mourning for nonhuman entities through aesthetic expressions that highlight the precariousness of their existence.

However, the encounter between Sun-jeong manhwa and SF has its limitations in that it does not lead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solidarities with nonhumans. Instead, it often focuses on narratives that demonstrate nonhuman's humanness, ultimately reducing the genre to a form of human drama or failing to affirm differences with the other. Nonetheless, it can be argued that the SF Sun-jeong manhwa presented a preemptive possibility of moving towards posthumanism by transcending the instrumental relationship between humans, machines, and life. Such an assessment may offer insights into the role and influence of 1990s women's comics in shaping a distinct genre of SF in South Korea.

(Keywords: 1990s, Sun-jeong manhwa, Science Fiction, Inhuman, The Other, Melodrama, Romance, Mourning)

논문투고일 : 2023년 9월 19일
논문심사일 : 2023년 10월 7일
수정완료일 : 2023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 2023년 10월 19일